

여호수아서

제 2 강

승리의 정복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웅 (Pasto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7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copyright ©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여호수아서(The Book of Joshua)

제 2 강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승리를 위한 준비(PREPARATIONS FOR VICTORY)	2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2
1. 하나님의 명령(God's Commands)	3
2. 여호수아의 명령(Joshua's Commands)	3
3. 이스라엘의 순종(Israel's Obedience).....	3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3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4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4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5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5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6
III. 두 성에 대한 승리(VICTORIES OVER TWO CITIES).....	7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7
1. 여리고성(City of Jericho).....	8
2. 아이성(City of Ai)	10
3. 언약 갱신(Covenant Renewal).....	12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12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13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13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14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16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17

IV. 두 연맹에 대한 승리(VICTORIES OVER TWO ALLIANCES).....	18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19
1. 연맹들의 개관(Overview of Alliances).....	19
2. 승리들의 개관(Overview of Victories).....	19
3. 남부 연맹에 대한 승리(Victories over Southern Alliance).....	19
4. 북부 연맹에 대한 승리(Victories over Northern Alliance).....	20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20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21
2.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21
3.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22
4. 온 이스라엘(All Israel).....	24
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25
A. 개시(Inauguration).....	25
B. 지속(Continuation).....	28
C. 완성(Consummation).....	29
VI. 결론(CONCLUSION)	31

여호수아서(The Book of Joshua)¹

제 2 강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I. 서론(INTRODUCTION)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묘사하는 여호수아서의 장들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 있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멸망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를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적 성향과는 반대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복을 용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며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받는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강좌의 두 번째 강의이다. 그 제목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1-12 장)을 다룰 것이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원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여호수아서는 후세대들이 직면한 유사한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 지파들의 기업, 언약의 충성에 관해 기록되었다.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는 원래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나 더 늦은 바벨론 유수 기간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여호수아서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승리의 정복을

¹ **Dr. Seth Tarrer (Host)** is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Biblical Languages at Knox Theological Seminary. Dr. Tarrer received his M.Div. from Beeson Divinity School and his Ph.D. from University of St. Andrews. He is a member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d has taught at seminaries in Buenos Aires, Argentina, and Medellin, Colombia. He is the author of *Reading with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rue and False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Eisenbrauns, 2013)*.

추구하고 지파들의 기업을 확보하고 언약의 충성을 새롭게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1-12 장)은 전쟁과 관련된 원래 청중의 도전들을 다룬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거둔 광범위한 승리의 정복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원래 청중의 도전들을 다룬다. 여호수아 1-12 장은 세 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은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1 장)이고, 두 번째 단락은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초기 승리(2-8장)이고, 세 번째 단락은 두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9-12 장)이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을 다루는 이번 강의는 이 세 단락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독교인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설명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를 살펴보자.

II. 승리를 위한 준비(PREPARATIONS FOR VICTORY)

시간 관계상 우리는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여호수아 1 장)의 두 가지 측면만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 부분의 구조와 내용을 살핀 다음 그것의 원래 의미의 몇 가지 측면을 살필 것이다. 그럼 여호수아 1 장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하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여호수아서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로 시작한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 즉 “요단 건너편(across the Jordan)”을 의미하는 혼히 트랜스조든(Transjordan)으로 불리는 지역에 있다. 민수기 32 장에 따르면, 이 영토들은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여 받았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 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서쪽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라고 명하셨다. 이 지역은 때때로 “요단의 이쪽, 요단 옆(beside the Jordan)”을 의미하는 시스조든(Cisjordan)으로 불린다.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를 다루는 이 단락은 여호수아서에 나올 모든 전쟁에 대한 적절한 지휘 체계를 소개하는 세 단계로 나뉜다.

1. 하나님의 명령(God's Commands)

우리는 먼저 수 1:1-9 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읽는다. 수 1:2 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수 1:6, 7, 9)!”고 말씀하셨다.

2. 여호수아의 명령(Joshua's Commands)

다음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응답을 보이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소개했다. 수 1:10-15 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수 1:11 에서 그는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수 1:14 에서 그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구체적으로 “모든 용사들은 ... 건너가라.”고 명령했다.

3. 이스라엘의 순종(Israel's Obedience)

마지막으로, 저자는 수 1:16-18 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전했다. 수 1:16 에서 지파들은 만장일치로 충성스러운 봉사를 다짐하며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우리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를 전하는 여호수아 1 장의 삼중 구조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원래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저자가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서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묘사로 시작되었음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명령은 직접적이고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순종하라고 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단 한 사람도 전투에 참여하라는 요구에 대해 주저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은 그들과 맞서는 다양한 적들에 직면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 이상적인 설명을 본받아야 했다.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여호수아서 1 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저자의 긍정적인 묘사가 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그는 승리를 위한 준비에 대한 설명에서 이스라엘의 준비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첫 장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수 1:1)."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명령의 배후에 있는 권위이심을 입증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수 1:5)."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셨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수 1:17)."라고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서 이 주제가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사건들을 지휘했기 때문에 원래의 청중은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를 마음에 새겨야 했다.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둘째로, 승리를 위한 여호수아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첫 장면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리라(수 1:6)."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암시한다. 첫째, 이스라엘은 단순히 가나안을 받을(receive)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inherit < 히브리어 동사 **יָרַשׁ**[나할])" 것이었다. 가나안 땅은 신명기에서 거의 30 번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40 번 이상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 유업"으로 묘사된다. 둘째,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읽는다. 이것은 창세기 15 장을 가리키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그 당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가나안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원래 이스라엘 청중에게도

속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시대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셋째로, 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수 1:7 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주듯이, 원래의 청중은 그들이 직면한 갈등에 대한 중요한 관점, 곧 모세 율법에 복종하면 승리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패배할 것이라는 관점을 파악해야 했다.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넷째로, 승리를 위한 여호수아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가나안 정복을 가능하게 했음을 지적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시작 장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수 1:5)"고 말씀하셨을 때 이 관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수 1:9)."고 하신 말씀에서 반복된다. 대하 20:17 과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수 1:17 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열렬히 응답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정복은 단순한 인간적인 일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어떤 세대도 전쟁에 나가 자기 힘으로 승리할 수 없었다. 그들이 승리하기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을 때에만 가능했다.

(마이클 글로도[Michael J. Glodo] 목사)² 수 1:5 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물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형태나 방식에 상관없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전쟁과 용사이신 하나님의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출애굽기 3 장과 6 장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실제로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의 줄임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하는 구약 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곧 하나님에 대한 이 구약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성품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임마누엘"이 그 모티브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거나 격려하기 위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를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반에 걸쳐 거듭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다섯째로, 여호수아 1 장은 온 이스라엘의 참여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 1:14 에서 여호수아는 직접 요단 동쪽의 지파들에게 명하여 "너희 모든 용사들은 ... 건너가라!"고 한다. 온 이스라엘이 정복에 참여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순종의 장면에서 다시 나타난다. 수 1:18 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² **Rev. Michael J. Glodo**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Orlando, Florida.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서 전반에 걸쳐, 저자는 그의 원래 청중에게 그들이 당대에 직면한 갈등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면 온 이스라엘이 한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이상을 제시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승리의 정복에 대한 서론으로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에 관한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한 후, 저자는 두 성, 곧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초기 승리를 전했다.

III. 두 성에 대한 승리(VICTORIES OVER TWO CITIES)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첫 단계를 묘사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갔다. 여리고를 쳐부수고 그들은 아이성으로 진격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약속의 땅의 바로 심장부인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초기 성공을 축하했다.

우리는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록한 이 부분(수 2-8 장)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우리는 그것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의 원래 의미를 요약할 것이다. 그럼 먼저 그것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전반적으로, 여리고와 아이 정복을 위한 잘 알려진 이야기들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교훈이다. 이 교훈은 저자에게 매우 중요했으므로 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곧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 성을 상대로 승리하도록 이끌었지만 그 승리의 길은 매우 달랐다. 여리고성 전투의 모든 면은 이상적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성에 대한 승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불충을 회개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1. 여리고성(City of Jericho)

여호수아 2-8 장에 나오는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수 2:1-6:27)은 여리고성 전투를 다루고, 두 번째 부분(수 7:1-8:28)은 아이성 전투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수 8:30-35)은 언약 갱신을 다룬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a) 여호수아의 정탐꾼들과 라합(Joshua's Spies & Rahab)

여리고 이야기는 4 개의 주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수 2:1-24)는 여호수아의 정탐꾼들과 라합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여호수아는 그 성을 조사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다. 그들은 라합을 만났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고 의지하며 정탐꾼들을 보호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엄숙한 약속을 받았다. 그 후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와 대칭을 이루는 네 번째 에피소드(수 6:22-27)는 여호수아의 정탐꾼들과 라합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여리고성의 이야기 부분을 마무리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라합에 대한 보호의 맹세를 지키라고 명했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영입되었다. 이렇게 라합과 정탐꾼들로 시작하고 끝냄으로써 저자는 여호수아 2-6 장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여리고 전투의 일부로 묘사했다.

히 11:31 과 약 2:25 은 라합이 순종으로 표현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려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를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저자가 그의 원래 청중을 위해 다른 문제들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기적적인 요단강 도강(Miraculous Crossing of the Jordan)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리고 전투 이야기(수 2:1-6:27)에서 라합과 정탐꾼들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수 2:1-24)과 네 번째 에피소드(수 6:22-27)는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며 틀을 이룬다. 이 틀 사이에 놀랍도록 기적적인

두 에피소드가 나온다. 그 중 먼저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수 3:1-5:12)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는 것을 본다. 이 장들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의식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승인을 강조한다. 그 때에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갈라졌다. 각 지파에서 뽑힌 열두 사람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있는 곳 곁에 열두 돌을 쌓았고 백성이 지나갔다. 요단강 건너는 일이 끝나자, 그들은 돌을 강 서편으로 옮겼다. 강은 다시 흘렀고 가져온 열두 돌은 길가에 기념비로 세워졌다.

이 에피소드의 의식적인 시작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저자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했는지를 전했다. 나흘 후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고, 처음으로 만나 대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c) 기적적인 여리고 함락(Miraculous Crossing of the Jordan)

기적적인 도강에 대한 두 번째 에피소드(수 3:1-5:12)에 이어 세 번째 에피소드(수 5:13-6:21)는 기적적인 여리고 함락을 전한다. 이 전투를 소개하기 위해 저자는 여호수아의 다가올 특별한 승리를 설명하는 신비로운 삽화로 시작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났다. 수 5:13 에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우리를 위협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협니까?” 수 5:14 에서 천사는 대답한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와의 군대장관이다. 이제 내가 왔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밭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하늘 군대의 지원을 보장했다.

이 삽화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공격에 대한 지시를 내리셨다. 이 공격은 전적으로 하늘 군대의 지원에 달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을 따르며 6 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돌아야 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게 되어 있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천사의 군대를 불러 싸우게 하였다. 백성은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돌 때 제사장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쳐야 했고, 오직 기적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후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지시에 순종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특징 하나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수 6:17 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 **נָתַן**[하람]을 번역한 것이다.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이 용어는 상응하는 명사 **נָתַן**[헤렘]과 함께 예배 행위를 내포한다. 레 27:28 과 같은 전쟁의 맥락 밖에서 이 동일한 용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 동물 또는 땅을 영구적으로 바치는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와 같은 전쟁의 맥락에서 그것은 동물과 사람을 죽이고 선별된 귀금속 등을 성막에 바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어떻게 예배 행위였는가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군대를 포함한 일반 군대가 전투에서 획득한 약탈품과 노예로 자신들을 부요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신 20:16 과 같은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주민들이 그에게 온전히 바쳐지도록 (일종의 예배 행위처럼)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승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승리임을 인정했다.

2. 아이성(City of Ai)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을 묘사한 후에, 저자는 수 7:1-8:29 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것을 전했다.

a) 이스라엘의 패배(Israel's Defeat)

아이성 에피소드는 세 단계로 전개된다. 첫 번째 단계(수 7:1-5)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간략한 묘사를 본다. 이 이야기에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이 쉽게 정복되리라는 잘못된 보고를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의 일부만 공격하도록 보냈다. 우리는 또한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에서 획득한 일부 약탈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 몰래 간직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약 36 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에서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백성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b) 이스라엘의 회개(Israel's Repentance)

두 번째 단계(수 7:6-26)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 읽는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탄식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이유를 알려 주셨다. 수 7:11 에 따르면,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 내 언약을 어겼다."라고 선언하실 만큼 매우 심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찾기 위한 지침을 주셨다. 그리고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돌로 치고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멸"되었다. 가나안 족속의 끔찍한 죄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된 것과 같은 진멸이 이 이스라엘 가족에게도 행해졌다.

(베츠[T. J. Betts] 박사)³ 아간의 죄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리고를 물리치고 정복했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간이 한 일은 자기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그것은 또한 비극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이스라엘의 어느 한 개인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단지 그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신앙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죄를 지은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단지 구약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면 신약적인 것도 된다. 그리고

³ Dr. T. J. Betts is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것은 분명히 아간의 경우에 그리고 그의 죄의 경우에 해당된 일이다.

c) 이스라엘의 승리(Israel's Victory)

세 번째 단계(수 8:1-29)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결과, 즉 아이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본다. 우리는 익숙한 패턴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복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이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했고, 이에 백성은 순종했다. 전투가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3. 언약 갱신(Covenant Renewal)

여리고와 아이에서 성공을 거둔 후,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에 대한 이야기는 수 8:30-35 에서 언약 갱신으로 마무리된다. 신 11:29 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의 심장부인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정복의 첫 부분의 완료를 축하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이 낭독되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수 2-8 장)의 구조와 내용을 염두에 두며, 이제 우리는 이 장들의 원래 의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원래의 청중은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그들이 그들의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본받아야 할 이상으로 여리고를 제시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전투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아이를 제시했다. 그리고 언약 갱신의 성대한 축하는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베푸신 자비들이 원래의 청중에게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전투에서의 성공을 축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이러한 방식으로 청중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저자는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5 가지 주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첫째로, 그는 이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수 3:7).”라는 말씀을 읽는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어구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었다. 여리고의 기적적인 함락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수 6:2).”라는 어구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지적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과 같이(수 4:14)”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수 4:23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셨다. ...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수 5:15).”라는 말씀을 읽는다. 여리고의 기적적인 함락 이야기에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수 5:15).”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 3:5 에서 명령하신 것과 매우 흡사하다.

아이성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개와 함께 우리는 수 7:10 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어구는 아이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는 이야기에도 나온다(수 8:1, 18). 다시 한번 저자는 이 사건들이 그의 청중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 자신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 지시되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둘째로,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는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세우셨음을 강화시켰다. 요단을 건너 후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 중에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수 5:6)”이라고 언급된다. 여호수아의 정탐꾼 이야기에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수

2:9)."고 고백했다. 정탐꾼들도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수 2:24)."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리고 함락의 이야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치라!"고 명령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수 6:16)."고 말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은 원래 청중에게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주어졌다.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셋째로,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의 규정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역자 주: 참고, 민 32:28; 신 3:21; 31:7, 23]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수 4:10)"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수 4:12 은 요단 동쪽 지파들도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무장하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갔다고 알려준다[역자 주: 참고, 민 32:20-32]. 수 5:3 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한 것이었다[역자 주: 참고, 창 17:10-15, 26-27; 출 12:44, 48]. 수 5:10 에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날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날이었다[역자 주: 참고, 출 12:6; 레 23:5; 민 9:5; 28:16; 신 16:1, 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과 라합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수 6: 22 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라합을 대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확립된 규레이다[역자 주: 참고, 신 6:13; 10:20; 23:21, 23]. 수 6:24 에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한 대로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라고 지적하였다[역자 주: 참고, 신 13:16].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아이에서의 패배를 설명해 주었다. 수 7:1 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수 7:15 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이 "여호와와 언약을 어겼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수 7:13 에서 이 불순종의 결과를 선언하시며 아간의 죄가 바로잡힐 때까지 이스라엘이 적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는 그것을 수 22:20 에서 다시 언급한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나라에 임한 이유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법을 다루자마자 패배는 승리로 바뀌었다.

이러한 관점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후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에서도 다시 강조된다. 수 8:31 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준비했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만들었다. 수 8:32 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 수 8:33 에 따르면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절반으로 나뉘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섰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강조를 통해 저자는 원래 청중의 승패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오르난 크루즈[Ornan Cruz] 목사) ⁴ 여호수아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정말 강력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 전체는 순종에 대한 부르심이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무엇이 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 1:8 에 나오는 참으로 기반이 되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넷째로,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는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각시켰다. 이 주제는 여리고 함락으로

⁴ Pastor Ornan Cruz is Pastor of Los Pinos Nuevos in Cuba.

이어지는 장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여호수아의 정탐꾼들과 라합이 관련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다(수 2:9; 역자 주: [새번역]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공동번역]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수 2:24)."라는 보고를 통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신 11:22-25 과 같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의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알려준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수 3:7)."고 선언하셨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싸우고 계심을 나타낸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즉 너희와 함께, 계신다(수 3:10)."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 5:1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 마음이 녹아내린 것을 본다.

여리고 함락의 거의 모든 차원이 이 주제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고 묘사하는 수 6:20 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저자가 여호수아의 정탐꾼들과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다(수 6:27)."라는 말로 마무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초기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수 7:5 에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겁에 질려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를 바로잡을 때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수 7:12)."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아간을 처리한 후에 아이성에 대한 승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분의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셨다. 수 8:18 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셨고,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두 성에 대한 여호수아의 초기 승리를 말해주는 장들의 전반에 걸쳐 저자는 원래 청중이 인간의 힘으로 그들의 전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왔다.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다섯째로,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는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이 정복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에피소드에서 수 3:1, 17 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다고 말한다[역자 주: 수 3:1 **콜 브네 이스라엘** NIV all the Israelites/ESV all the people of Israel/NASB all the sons of Israel; 3:17 **콜 이스라엘** all Israel; 3:17 **콜 하고이** NIV the whole nation/ESV=NASB all the nation/NKJV all the people]. 물론 수 4:4 에 나오는 "열두 사람"과 수 4:8, 9, 20 에 나오는 "열두 돌"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표한다. 이 외에도 수 5:8 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모든 국민[역자 주: **콜 하고이** NIV=ESV the whole nation/NASB all the nation/NKJV all the people]"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여리고 함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역자 주: **콜 안세 하밀하마** all the men of war]"와 함께 성 주위를 돌도록 명령하셨다(수 6:3).

다시 한번 우리는 아이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야기에서 현저한 대조를 본다. 수 7:3 에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온 백성[역자 주: **콜 하암** all the people]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 후에야 비로소 저자는 수 7:23 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역자 주: **콜 브네 이스라엘**]"의 참여를 언급했다. 그리고 수 7:24, 25 에서 "온 이스라엘[역자 주: **콜 이스라엘** all Israel; 참조, 개역개정: '이스라엘 모든 사람(24 절)' / '온 이스라엘(25 절)']"은 아간에 대한 심판에 함께 참여했다.

지금쯤 기대해야 하는 것처럼 언약 갱신의 이야기에서 "온 이스라엘[**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섰다(수 8:33). 이렇게 저자가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는 부분에서 온 이스라엘의 참여에 주목한 것은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승리에 대한 준비로 시작하여 두 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후기 승리를 살펴볼 것이다.

IV. 두 연맹에 대한 승리(VICTORIES OVER TWO ALLIANCES)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의 정복이 어떻게 두 도시에서 두 지역, 즉 약속의 땅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으로 확장되었는지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수 9-12 장)은 특히 원래 청중의 필요와 관련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수아의 정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범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서 2-8 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정복은 요단 동쪽에서 여리고와 아이를 거쳐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이르렀다. 이에 이어서 바로 저자는 가나안 전역에서 여호수아에 대항하는 연맹이 형성되었던 것을 소개한다. 처음에는 남부 연맹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는 북부 연맹이 형성되었다.

두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부분(수 9-12 장)의 구조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그것의 원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구조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여호수아서 9-12 장에 나오는 두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이야기는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크게 네 부분[수 9:1-2; 9:3-10:43; 11:1-15; 11:16-12:24]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된다.

1. 연맹들의 개관(수 9:1-2 Overview of Alliances)

그 첫 번째 부분(수 9:1-2)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일어난 연맹들에 대한 짧은 개관을 제공한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9-12 장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 두 구절이 말하듯이, “요단 서쪽에 있던 모든 왕들이 ...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

2. 승리들의 개관(수 11:16-12:24 Overview of Victories)

연맹들에 대한 이야기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수 11:16-12:24)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이중 개관을 줌으로써 그것의 첫 번째이자 시작 부분(수 9:1-2)과 균형을 이룬다. 우선, 수 11:16, 23 은 요단 서쪽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 거둔 모든 승리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두 구절은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한 것을 강조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멸했다. 그리고 수 11:23 의 하반절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로 끝난다. 이어서, 저자는 수 12:1-24 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서 거둔 승리를 통해 그들이 물리친 왕들과 획득한 땅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책의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

3. 남부 연맹에 대한 승리(수 9:3-10:43 Victories over Southern Alliance)

이러한 연맹의 개관(수 9:1-2)과 승리의 개관(수 11:16-12:24) 사이에 두 개의 주요 부분이 들어 있다. 그 중 첫 번째 것(수 9:3-10:43)을 통해 저자는 남부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된 기브온과의 조약(수 9:3-27)으로 시작한다. 가나안의 중심부에 살던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가나안 밖에서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속여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약속의 땅의 남부 지역에 대규모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 대규모 분쟁(수 10:1-5)은 이스라엘의 초기 남부 승리로 이어졌다. 이 구절들을 보면 예루살렘 왕이 다섯 명의 남부 왕들과 연맹을 형성하여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다. 이에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의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도울 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기 남부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이어서 저자는 수 10:16-43 에서 여호수아의 광범위한 남부 승리, 즉 남부 연맹 전체를 상대하여 여러 곳에서 거둔 승리를 추가했다. 저자가 수 10:40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 온 땅을 정복했다.”

4. 북부 연맹에 대한 승리(수 11:1-15 Victories over Northern Alliance)

연맹 개관(수 9:1-2)과 승리 개관(수 11:16-12:24) 사이에 들어있는 두 개의 주요 부분 중 두 번째 것은 수 11:1-15 에 나온다. 여기서 저자는 북부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한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남부 연맹에 대한 승리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기록이 훨씬 짧다. 수 11:1-11 에서 하솔 왕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연맹을 형성했다. 우리는 수 11:4 에서 이 연맹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큰 무리”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북부 연맹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수 11:12-15 에서 여호수아가 북부 전역에서 거둔 결정적인 승리에 대한 요약 발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수 9-12 장)의 구조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잠시 이 장들의 원래 의미를 성찰해보자.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우리가 보았듯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투는 원래 청중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저자는 후대에 사는 청중이 이러한 본보기들을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본보기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적을 가진 단일 도시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청중은 상당한 군대와 함께 강력한 연맹을 대표하는 적들과 대면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원래 청중을 격려하기 위해, 저자는 또한 여호수아가 그의 시대에 결성된 연맹에 대항하여 거둔 대규모 승리에도 주목했다.

두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 장들에서 보았던 다섯 가지 주제 중 네 가지를 강조했다.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첫째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본다. 예를 들어, 남부의 초기 승리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수 10:8 의 말씀을 읽는다. 다른 한 예로서 수 11:9 은 여호수아가 북부에서 승리를 거두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행동을 수행했다고 말한다. 이 장들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력을 몇 번이고 강조한다. 이는 원래 청중이 그들 자신의 시대에 일어난 갈등에 직면했을 때 연맹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위대한 승리가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둘째로, 두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는 이야기는 또한 모세 율법의 규정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 이야기에서 수 9:14 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속았다는 것을 읽는다. 그들은 모세가 신 17:9 과 같은 구절들에서 지시한 대로 제사장들에게 인도를 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불충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 9:20 을 보면 여호수아는 "우리가 [기브온 족속]에게 맹세한 맹세"를 지킴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

게다가 여호수아의 광범위한 남부 승리의 요약 기사에서 우리는 수 10:40 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여 바쳤을 때 모세의 명령을 순종한 것을 읽는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호수아는 북부에서 승리를 거두며 "여호와와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그들을 진멸하여 바쳤다(수 11:12)." 수 11:15 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거둔 승리에 대한 결론적인 개관에 나오는 수 11:20 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 주제가 강조된 이유는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율법에 충실할 때만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 시대에도 승리의 열쇠였다.

3.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셋째로, 우리는 두 동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배운다. 남부의 초기 승리에서 수 10:10 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앞에서 [그 남부 동맹]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 10:11 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수 10:13 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태양이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초자연적인 개입은 저자로 하여금 수 10:14 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놀라운 논평을 하게 했다. 그리고 수 10:21 에 의하면,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승리가 계속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므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여호수아는 10:25 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대적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담대히 예언했다. 그리고 저자는 요약 마무리하며 수 10:42 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란 주제는 또한 이스라엘의 북부 승리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수 11:6 에서 "내가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여호수아를 확신시키셨다. 그런 다음 연맹에 대한 승리들의 마지막 개관에서 우리는 수 11:20 을 통해 이스라엘의 적들이 패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읽는다.

이 주제에 대한 저자의 반복은 원래 청중이 갈등 속에서 결코 자신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그들의 대적에게 승리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세리프 젠디[*Sherif Gendy*] 목사)⁵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그분의 권위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땅을 주셨다(*give*)" 또는 "땅을 넘겨주셨다/건네주셨다(*hand*)"라는 영어 표현은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나탄]에 대한 번역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여호와와 대적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이다. 이것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능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모여들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왕들을 대면하는 일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수 10:11의 말씀을 읽는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벰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수 10:11)

여기에 제시된 강조점은 여호와의 권위에 있다. 그분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여기 묘사된 승리는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승리로서 여호와께서 이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하신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만물과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준다.

⁵ **Rev. Sherif Gendy** is Director of Arabic Production a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4. 온 이스라엘(All Israel)

두 연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는 그의 이야기 전반에 걸쳐, 저자는 또한 네 번째 주제인 모든 이스라엘의 참여를 강조했다. 기브온 근처에서 얻은 남부의 초기 승리를 전하는 수 10:7 을 보면,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로 더불어 [브홀-암 하밀하마 이모 브홀 기보레 헤하일]" 진군했다. 그리고 우리는 수 10:15 을 통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여호수아 브홀-이스라엘 이모]" 전투에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부의 광범위한 승리의 기록에서 수 10:21 은 "모든 백성[콜 암]"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수 10:24 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콜-이시 이스라엘]"을 소환했다. 우리는 또한 수 10:29-38 에서 이 주제의 중요성을 본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역자 주: 여호수아 브홀-이스라엘 이모, 수 10:29, 31, 34, 36, 38]"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남부 연맹에 대한 승리를 전하는 전체 이야기(수 9:3-10:43)는 "온 이스라엘[콜-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것(수 10:43)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스라엘의 북부 승리를 전하며 수 11:7 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사[콜 암 하밀하마]"가 함께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종종 한 백성으로 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복들을 강조했다. 이것은 책의 원래 청중이 그들 시대의 적들과 마주할 때 함께 서있어야 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수 1-12 장)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승리에 대한 준비(수 1 장), 두 성에 대한 승리(수 2-8 장), 두 연맹에 대한 승리(수 9-12 장)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강의의 마지막 고찰 사항, 즉 이스라엘의 정복에 대한 이 기록의 기독교적 적용으로 나아갈 것이다.

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역사를 통틀어,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의 이 부분에 접근할 때 종종 극단으로 치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와 상관이 없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일부로서 그것을 거부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무기를 드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정복에 대한 예수님의 성취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의 적용에 대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국의 개시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복을 성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국이 완성될 때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정복이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A. 개시(INAUGURATION)

전반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갈등에 중요한 진전을 나타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과 일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왕국의 개시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탄과 악령들과 직접 대적하여 이겼다고 가르친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눅 10:18 에서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 더 나아가, 골 2:15 과 히 2:14-15 과 엡 4:8 과 같은 구절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사탄과 악령들을 물리쳤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은 또한 사도들이 이방인 땅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으로써 여호수아보다 더 나아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그분이 죄 많은 **인간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드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실제로 요 18:11 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물리적 공격에 대하여 그를 꾸짖으셨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좋은 소식")의 양면을 전파함으로써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확장시켰다. 그분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셨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일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정복의 이 초기 단계를 확장할 때 거의 동일한 일을 했다. 그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예수님처럼 그들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제 신약 성경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주 경고한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또한 **교회 안의 "거짓 형제들,"** 곧 불신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고전 16:22 과 갈 1:8 과 같은 구절들은 교회 안의 거짓 형제들에 대한 저주(헬라어 ἀνάθεμα[아나세마], 파문)에 대해 경고한다. 이러한 저주들은 "진멸하여 바친" 이스라엘 사람 야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이 연결은 고대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역의 여호수아서에서 [아나세마]라는 단어의 어형들이 "온전히 바친, 진멸하여 바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람]과 [헤렘]을 번역하는 데 사용된 사실[역자 주: 수 6:17; 7:1, 11, 12, 13, 15; 22:20]에 의해 강화된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그들은 또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제임스 해밀튼[James M. Hamilton] 박사)⁶ 여호수아서에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 아래 놓였고 완전히 지워졌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⁶ **Dr. James M. Hamilton**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Theology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Preaching Pastor of Kenwood Baptist Church.

선하고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세워주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주고,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그리고 바울이 고전 16:22 과 갈 1:8 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편으로 당신이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당신에게 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그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선하심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때, 그분은 모든 원수들을 금령 아래 둘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들의 신실함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확대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참됨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의 다섯 가지 주요 주제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개시 때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된다. 여호수아의 정복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인도되었듯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승리도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인도되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둔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의 승리도 새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모세 율법의 규정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성공의 열쇠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공도 모세와 모세 이후의 하나님의 더 충만한 계시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의존했듯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승리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존했다. 여호수아의 정복이 온 이스라엘을 포함해야 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불러 자기와 합류하게 하셨다. 오순절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악과의 싸움에 그분과

합류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또한 많은 수의 이방인을 초대 교회의 대열에 추가했다.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정복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이 어떻게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에서 성취되었는지 언급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의 성취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B. 지속(CONTINUATION)

고전 15:25 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의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하늘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0 년 동안 그분은 자신의 교회의 사역을 통해 전 세계적인 정복을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진전시켜 왔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회개와 언약 갱신과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했을 때 무수한 좌절을 경험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대의를 진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과 악령들과 치열하게 교전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 엡 6:13-18 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 ... 의의 호심경 ... 평안의 복음 ... 믿음의 방패 ...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고 ...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했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을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과 계속 교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거스르는 자들을 반대하지만,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지는 않는다. 대신,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심판과 자비를 선포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한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에게 경고했던 것과 같다. 고후 10:5 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지속에 대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은 여호수아의 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인도되었듯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진전시킬 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승리에 대한 이스라엘의 확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때문에 훨씬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모세 율법의 규정에 대한 복종에 달려 있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투에서 성공하는 것도 **모든** 성경(곧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규례에 대한 우리의 복종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정복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우리의 승리도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만 온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정복에 참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부터 한 백성이 되어 우리의 전투를 치러야 한다.

이스라엘의 정복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왕국이 개시될 때 하신 일과 자기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복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자기 왕국을 완성하실 날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강화시켜 주는 것에도 적용해야 한다.

C. 완성(CONSUMMATION)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리하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매우 확실한 용어로 우리에게 말한다. 요한은 계 19:11 에 나오는 그의 환상에서 예수님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으로 보았다. 재림의 그 날에 예수님의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정복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멸망을 대체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준 모든 긍정적인 유익을 대체하실 것이다.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거나 해칠 힘이 없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롬 16:20 에 기록한 대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반역적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계 21:8 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땅에서 제거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모든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리차드 린츠[Richard Lints] 박사)⁷ 우리는 큰 갈등과 긴장, 고통, 박해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바뀔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분의 초림과 다를 것이고, 그분의 재림이 종결을 가져오고 정의의 문제에 최종성을 가져올 것이며,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임을 시인하기 원한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말하자면, 타락한 상태에 있는 피조물의 시간적 체험의 마지막 때에, 완전한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벽하게 집행하실 것임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죽음 자체가 패배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모든 우상 숭배가 패배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현실에 대한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은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⁷ **Dr. Richard Lints** is Professor of Theology and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의 행동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재림의 크고 두려운 날도 인도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도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 때문에 확실하다. 이스라엘의 성공이 모세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달려 있었듯이, 예수님의 최후 승리도 그분에게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수아의 정복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세상이 이제껏 본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중 가장 큰 능력에 대한 과시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정복이 이스라엘의 모든 참여의 이상을 제시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의 모든 족속과 나라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할 것이다.

VI.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1-12 장)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 탐구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준비(1 장)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2-8 장)를 어떻게 대조했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강력한 동맹에 대한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승리(9-12 장)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주요 부분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루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거둔 정복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원래의 청중이 그들의 시대에 전쟁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을 위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다. 여호수아서는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성취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웅대한 성취에 참여할 때 우리를 인도한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신뢰하라고 요구한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투에 임하라고 요구한다. 여호수아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창조 세계 전반에 걸친 악과 악의 영향에 대한 승리의 정복을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